

일부 기혼부인의 가족계획 실천에 관한 연구
- 현존자녀의 성과 수를 중심으로 -

임 현 경*, 김 초 강**

(*운암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교육과)

목 차

I. 서 론	IV. 요약 및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I. 서 론

경제발전을 국시로 삼고 선진산업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할 당시 고출산 저사망에 의한 급속한 인구증가는 경제개발의 저해요인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병행하여 실시한 인구억제정책은 가족계획을 주축으로 강력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¹⁾²⁾³⁾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구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관심이 표명된 예가 거의 없었으며, 피임약제나 기구도 수입이 금지된 상태에 있었으며⁴⁾, 사회적 환경은 대부분의 국민이 “제 먹을 것 제가 갖고 태어난다”, “혈통을 잇고 제사를 지내줄 아들이 있어야 한다”, “부귀다남” 등 남아선호사상과 전통적 다자녀관이 팽배하던 시기로, 그 당시 부인 한명당 평균 자녀수는 6명이었고, 피임실천율은 9%에 불과하였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작 후 30년이 지난 지금 국가적 의지의 고조, 강력한 국제적 협조, 자원지도자와 민간단체들의 열성적인 활동 등에 힘입어 평균자녀수 2.1명, 피임실천율 79.4%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⁶⁾

실제로 정부가 주도하여 온 인구정책이 긍정적이고 사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사용을 장려, 보급하고자한 결과 피임실천율은 증대하고 인공유산율은 감소하

여야 할 것이나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임실천율의 증가와 더불어 인공유산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출산력 저하에는 인공유산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다.^{7)~11)}

또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가족계획 정책 수행에 한몫 하였는데 노후부양, 사후제사 등의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데에 두던 자녀가치관은 양육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심리적이며 현시적인 가치로 변화하여^{12)~13)}, 소자녀가치관이 정착되어 자녀수는 감소의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아선호사상은 여전하여 출생아의 성비는 1960년 이래 계속적으로 높아져 1991년에는 112.9에 이르러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이며 이러한 추세라면 2010년에 결혼 적령기의 남녀성비는 128.6으로 예측되어 결혼 적령기 남자 4명 중 1명은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심히 우려되고 있다.¹⁴⁾

1991년 현재 이상자녀수는 2.1명으로 소자녀관 정착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의 응답부인이 71.2%로 남아선호사상은 여전하며¹⁵⁾, 적은 자녀수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순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일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현존자녀의 성과 수에 따른 피임실천 여부와 방법 그리고 인공유산 실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가족계획 실천의 질적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인

식전환의 기회가 되고자 시도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설문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49세의 유배우 가임부인으로 임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3년 7월 12일부터 17일 사이에 기혼부인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1993년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30일간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조사 보조자들에게 먼저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대상부인에게 기재요령을 전달한 후 설문지를 현지에서 작성 수집하였다. 배부한 설문지는 총 570부였으며 이 중 536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4%), 응답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진 39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 497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 사업 중 예방적 차원에서 장려되고 있는 피임실천과 갈수록 우려되고 있는 인공유산경험을 중심으로 피임실천에서는 실천여부와 피임방법을, 인공유산경험에서는 마지막 임신결과와 인공유산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부인의 일반

적 특성·현존자녀의 성과 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가족계획실천 논의를 위한 분석들은 <그림 1>과 같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전산부호화하여 SPSS/PC⁺ 와 SAS/PC⁺를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특히 피임실천 여부와 인공유산 경험 유무라는 종속변수가 단지 두 범주(실천/비실천, 경험있음/경험없음)이기 때문에 Logistic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 분석은 두 명목(nominal)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의 방법을 좀 더 확산시킨 것이다.

본 연구에서 Logistic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인들은 부인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현존자녀수, 현존자녀의 성, 인공유산을 피임방법으로 알고 있는지의 여부 등 6가지이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text{Odds} = e^z$$

$$z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여기서 종속변수는 Odds이며, e^z 는 x 란 독립변수의 한 단위변화에 따른 Odds의 변화를 의미한다. Odds는 특정범주의 사례수를 그 이외 범주의 사례수로 나눈 비율로 $\text{Prob}(\text{event})/\text{Prob}(\text{no event})$ 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x_1 는 부인연령, x_2 는 교육수준, x_3 은 취업여부, x_4 는 현존자녀의 수, x_5 는 현존자녀의 성, x_6 은 인공유산을 피임방법의 하나로 알고 있는가를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x_1 에서 x_6 까지 각각의 독립변수의 한 단위변화에 따른 Odds의 변화인 각각의 e_z 를 측정하여 피임실천과 인공유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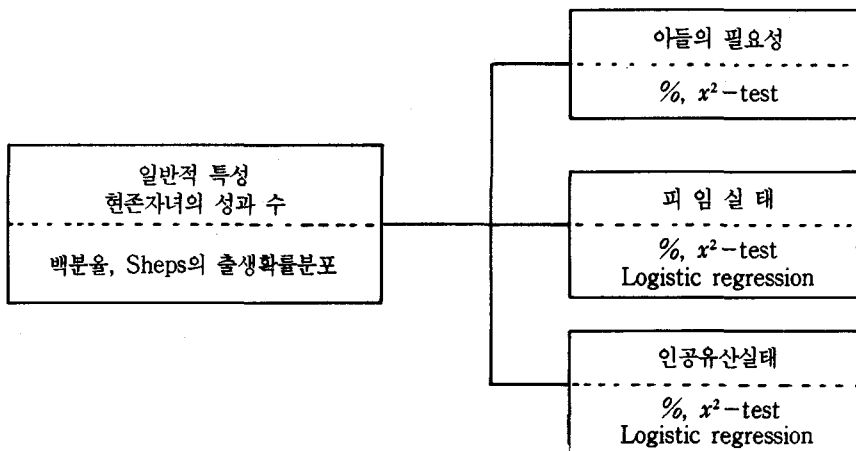


그림 1. 분석틀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징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부인과 남편의 연령, 학력, 종교, 형제 순위를 질문하였고, 현 결혼 상태, 결혼기간, 가족형태, 부인의 취업상태를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령에 있어서는 부인과 남편 모두 30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부인의 경우 30대가 51.7%, 40대가 29%, 20대가 19.3% 순으로 평균연령은 36.2세였고, 남편의 경우 30대가 47.9%, 40대가 33.1%, 50대가 12.5%, 20대가 6.5% 순으로 평균연령은 39.4세였으며 부인과 남편의 연령차는 2세이하가 56.6%이었으며, 평균 3.4세의 연령차로 최근 정부통계와 거의 유사하였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이상 부인이 54.7%, 고졸이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수(명)	비율(%)	
부인연령(세)	20-29	96	19.3	
	30-39	257	51.7	
	40-49	144	29.0	
	평균연령 36.2	표준편차 6.76	계 497	100.0
남편연령(세)	20-29	32	6.5	
	30-39	238	47.9	
	40-49	164	33.1	
	50-59	62	12.5	
	평균연령 39.4	표준편차 7.30	계 496*	100.0
부인학력	중졸이하	37	7.4	
	고 졸	188	37.9	
	대졸이상	272	54.7	
		계 497	100.0	
남편학력	중졸이하	7	1.4	
	고 졸	100	20.1	
	대졸이상	390	78.5	
		계 497	100.0	
부인종교	기독교	163	32.8	
	천주교	82	16.5	
	불 교	117	23.5	
	없 음	135	27.2	
		계 497	100.0	
남편종교	기독교	114	22.9	
	천주교	60	12.1	
	불 교	107	21.5	

	유 교	2	0.4
	없 음	214	43.1
		계 497	100.0
부인의 취업상태	취업경험 전혀없음	116	23.3
	현재 취업 중	174	35.0
	과거 취업했으나 현재 중단	207	41.7
		계 497	100.0

* 무응답 1명

표 2. Sheps의 출생확률 분포와의 차이

단위 : %

자녀수	성구성	본조사	Sheps	본조사-Sheps
1 명	아들 1	60.2	51.5	8.7
	딸 1	39.8	48.5	- 8.7
	계	100.0	100.0	
2 명	아들 2	27.5	26.5	1.0
	딸 2	21.5	23.5	- 2.0
	아들 1, 딸 1	51.0	50.0	1.0
	계	100.0	100.0	
3 명	아들 3	13.4	13.7	- 0.3
	딸 3	7.5	11.4	- 3.9
	아들 1, 딸 2	46.3	36.3	10.0
	아들 2, 딸 1	32.8	38.6	- 5.8
	계	100.0	100.0	

9%인 반면 중졸이하는 7.4%에 불과했고, 남편의 경우도 78.5%가 대졸인 반면 중졸이하인 경우는 1.4%에 불과해 상당히 높은 학력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대도시 일부지역에 한하여 임의 표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현존자녀의 분포

실제 현존자녀의 분포를 보면 조사대상 부인 497명 중 자녀가 없는 29명을 제외한 468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평균자녀수는 2.0명이었으며, 성별실태는 딸 아들을 모두 둔 자녀가 42.9%, 아들만 둔 경우가 33.5%, 딸만을 둔 경우가 23.6%이었다.

이를 Sheps의 성구성별 출생이론확률분포와 비교해

보면 Sheps는 모든 개인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출산능력을 가졌을 경우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0.515로 보고 구성비에 따른 출생확률을 산출하였는데(Mindel C. Sheps, 1963), <표 2>는 본 조사에 따른 부인의 현존자녀의 성구성비를 Sheps의 출생에 따른 이론확률 분포와 비교해 본 것이다.

현존자녀가 딸 1명일 경우는 Sheps의 확률분포보다 8.7%나 미달되는 반면, 아들 1명인 경우는 8.7%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딸 2명을 둔 경우도 마찬가지로 2.0% 미달이었으며, 반면 아들 1명, 딸 2명을 둔 경우는 출생확률분포보다 10%나 초과하여 딸만을 가진 부인은 더 빨리 자기임신기로 진입

하여 우리나라 부인들의 출산진도를 가속시켜 지속임신의 이유가 딸만 가졌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는 이홍탁(1987)의 연구¹⁶⁾와 같았다.

본 조사 결과 현존자녀의 성구성 중 아들 편중현상은 출생순위별 성구성에서도 볼 수 있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경우 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 정도인 반면 네째 자녀에 있어서는 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나 됨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3) 아들의 필요성

‘자녀 중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부인 497명중 37.0%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아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응답이 47.1%,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15.9%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비율이 총 84.1%로 대부분의 부인들이 아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력 저하와 함께 소자녀 가정이 보편화 되었다고는 하나 자녀수는 적어도 여전히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존자녀의 성과 수에 따른 아들의 필요성을 보면, 먼저 자녀수에 있어서 현존자녀가 없는 29명을 제외한 4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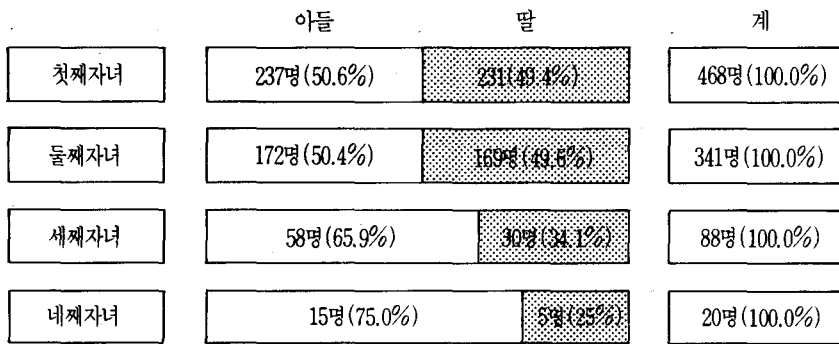


그림 2. 출생순위별 성 구성

표 3. 자녀의 성과 수에 따른 아들의 필요성

단위 : 명 (%)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는것이 없는것보다 낫다	없어도 상관없다	계	χ^2
자녀수 (명)					
1	34(26.56)	63(49.22)	31(24.22)	128(100.0)	19.34*
2	96(38.25)	116(46.22)	39(15.54)	251(100.0)	
3	30(44.78)	33(49.25)	4(5.97)	67(100.0)	
4 ↑	13(59.09)	7(31.82)	2(9.09)	22(100.0)	
자녀의 성					
아들만으로	60(38.46)	72(46.16)	24(15.38)	156(100.0)	32.24**
딸만으로	23(20.72)	54(48.65)	34(30.63)	111(100.0)	
딸·아들로	90(44.78)	93(46.27)	18(8.96)	201(100.0)	
계	173(36.97)	219(46.79)	76(16.24)	468(100.0)*	

* $p < 0.01$ ** $p < 0.001$ # 현존자녀가 없는 29명 제외

가 3명인 경우 44.8%, 4명 이상인 경우 59.1%가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자녀수가 3명인 경우 6.0%, 4명 이상인 경우는 9.0%에 불과하여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들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현존자녀의 구성에 있어서는 딸만을 둔 부인의 경우 30.63%가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하여 아들만을 둔 부인의 15.4% 응답이나 딸 아들 모두를 둔 부인의 9.0% 응답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 아들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항목에 아들만 있는 부인 중 38.5%가 응답한 반면 아들 딸이 모두 있는 부인 중 44.8%가 응답하여 아들에 대한 선호정도를 뚜렷이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P < 0.001$).

2. 현존자녀의 성과 수에 따른 피임실천 실태

1) 피임실천 여부

현존자녀 성과 수에 따른 피임실천 실태는 <표 4>와 같다. 자녀가 1명일 경우 피임실천을 하고 있는 부인은 60.2%인 반면 2명의 자녀를 두고 피임실천을 하는 부인은 78.1%, 3명일 경우는 76.1%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 부인이 이상자녀수로나 현존자녀수로나 평균자녀인 2.0명을 두고 난 후 대부분 피임실천을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녀수에 따른 피임실천 여부는 통계학적으로도 매우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P < 0.001$).

현존자녀가 딸 아들 모두 있는 경우 가장 높은 피임실천율 76.6%을 보였으며 아들만 있는 경우도 71.8%로 높은 실천율을 보인 반면에 딸만 있는 경우는 63.1%로 가장 낮은 피임실천율을 보여 아들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임신과 출산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P < 0.05$).

2) 피임방법

피임실천을 하고 있는 부인 중 현존자녀가 없는 3명을 제외한 336명의 현존자녀수와 구성에 따른 피임방법의 차이는 그림 3,4와 같다.

자녀수가 1명일 경우는 일시적 피임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반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한 비율은 증가하여 <그림 3> 현존자녀가 3명일 경우 74.5%, 4명 이상일 경우는 83.3%가 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표 4. 자녀의 성과 수에 따른 피임실천의 차이

단위 : 명 (%)

	실 천	비 실 천	계	χ^2
자녀수 (명)				
1	77(60.16)	51(39.84)	128(100.0)	31.45**
2	196(78.09)	55(21.91)	251(100.0)	
3	51(76.12)	16(23.88)	67(100.0)	
4 ↑	12(54.55)	10(45.45)	22(100.0)	
자녀의 성				
아들만으로	112(71.79)	44(28.21)	157(100.0)	6.49*
딸만으로	70(63.06)	41(36.94)	111(100.0)	
딸·아들로	154(76.62)	47(23.38)	201(100.0)	
계	336(71.79)	132(28.21)	468(100.0)*	

* $p < 0.05$ ** $p < 0.001$ # 현존자녀가 없는 29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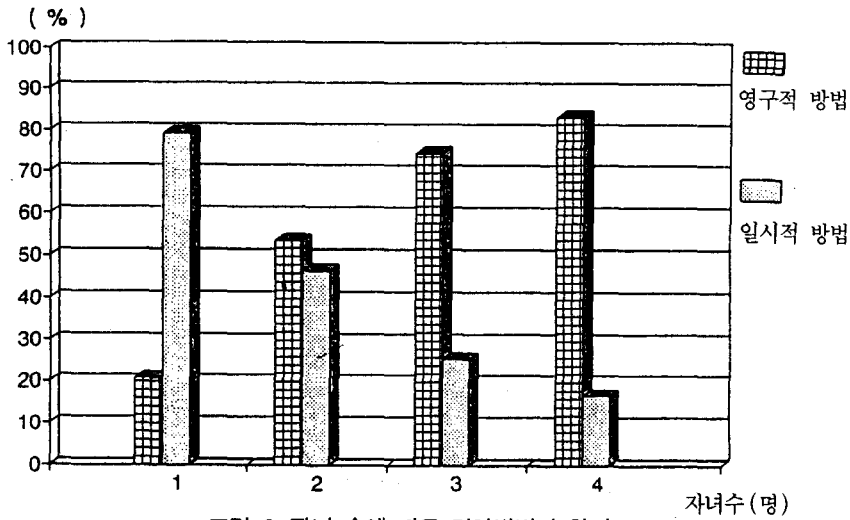


그림 3. 자녀 수에 따른 피임방법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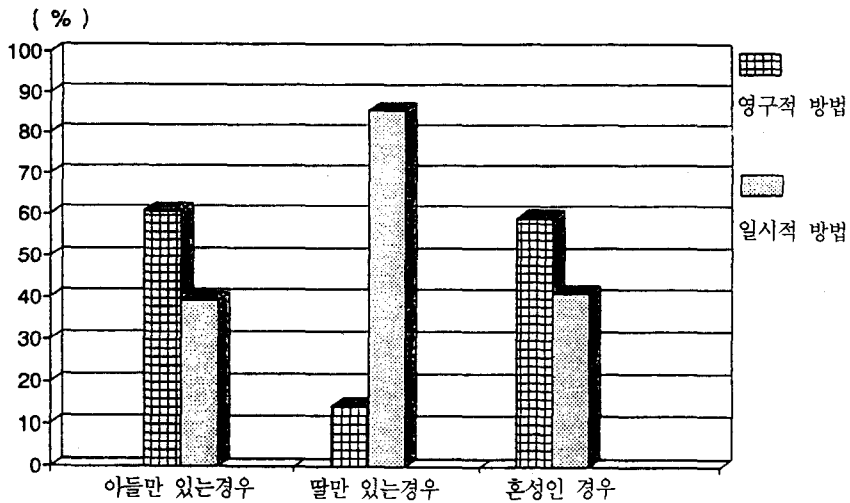


그림 4. 자녀 성에 따른 피임방법의 차이

현존자녀의 성에 따른 영구적 피임방법의 사용비율은 아들만으로 구성된 경우나 아들 딸로 구성된 경우 각각 60.7%, 59.1%와는 달리 딸만 있는 경우는 14.29%만이 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하여 현존자녀의 성에 따라 사용하는 피임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으며($P < 0.001$), 따라서 현존자녀가 딸만일 경우 일시적 피임방법의 사용율이 높아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그림 4).

3.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부인의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Logistic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독립변인은 대상부인의 인적 특성중 연령,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현존자녀의 성과 수, 그리고 인공유산물 피임의 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지 등의 6가지였으며 이중 부인의 취업여부와 자녀구성, 인공유산물 피임으로 알고 있는가의 변

표 5.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효과

변 인	β (S.E)	Odds Ratio	
연 령	.036 (.017)	1.037*	
교육수준	.488 (.182)	1.629**	
취업여부	.045 (.229)	1.046	
현존자녀의 수	-.062 (.037)	.940	
현존자녀의 성	-.340 (.251)	.712	
인공유산율 피임방법으로 인지	-.183 (.261)	.833	
	Chi-Square	df	Significance
-2 Log Likelihood	501.700	427	.0073
Model Chi-Square	44.097	6	.0000
Goodness of Fit	422.533	427	.5519

* $p < 0.05$ ** $p < 0.01$

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부인이 취업한 경우를 '1' 취업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자녀중 아들이 없는 경우를 '1' 있는 경우를 '0'으로, 인공유산을 피임방법의 하나로 알고 있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였다.

<표 5>에서 보면 분석을 위하여 logit coefficient 인 β 와 각각 독립변수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odds (특정범주의 사례수를 그 이외 범주의 사례수로 나눈

비율)의 변화를 의미하는 odds ratio를 제시하였다.

우선 부인의 연령이 피임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P < 0.05$), 부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피임실천율이 높아지는 편이었다(odds=1.04).

부인의 학력도 유의한 영향을 보여($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도 높았다(odds=1.63).

그외 취업부인의 피임실천율이 높았으며, 자녀수가 많거나 자녀 중 아들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인공유산을 피임방법의 하나로 알고 있는 경우 피임실천율이 낮았으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다.

4. 현존자녀의 성과 수에 따른 인공유산 실태

조사대상 부인 497명 중 임신경험이 없거나 현재 첫 임신중인 부인 18명을 제외한 47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인공유산 경험이 없는 부인은 49.7%였고, 경험이 있는 부인은 50.3%였으며 이 중 23%는 2회이상의 반복 인공유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의 인공유산 실시 이유는 <그림 5>와 같다.

인공유산의 이유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더이상 자녀를 원치않아서'인 경우가 48.3%였으며, 그외 '어머니의 건강문제' 12.3%, '태울조절을 위해' 12.0%, '결혼전 또는 혼외임신' 11.0%, '태아가 딸이어서' 10.4% 등이 주요 이유였으며, 기타 '태아의 기형'이나 '약물복용으로' 등의 이유로도 6.0%의 인공유산이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인공유산이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인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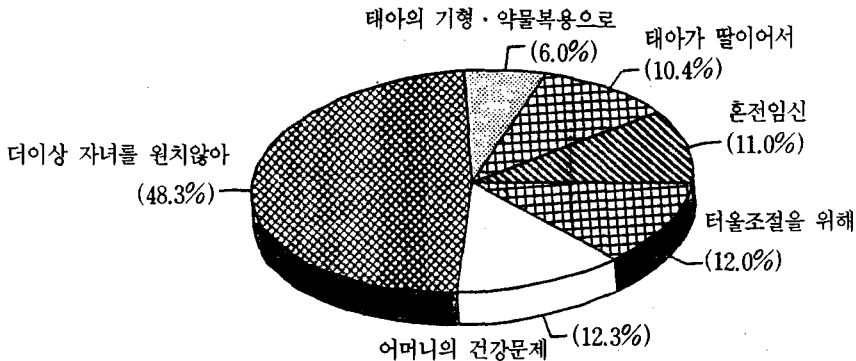


그림 5. 인공유산 이유

표 6. 자녀의 성과 수에 따른 마지막 임신결과

단위 : 명 (%)

마지막 임신	출산	인공유산	계	χ^2
자녀수 (명)				
1	60(63.83)	34(36.17)	94(100.0)	6.73
2	137(58.05)	99(41.95)	236(100.0)	
3	38(58.46)	27(41.54)	65(100.0)	
4 ↑	18(85.71)	3(14.29)	21(100.0)	
자녀의 성				
아들만으로 구성	74(55.64)	59(44.36)	133(100.0)	3.86
딸만으로 구성	52(57.78)	38(42.22)	90(100.0)	
딸·아들로 구성	127(65.80)	66(34.20)	193(100.0)	
계	253(60.82)	163(39.18)	416(100.0)*	

*마지막 임신 421건 중 현존자녀 없는 5건은 제외

표 7. 자녀의 성과 수에 따른 인공유산 경험

단위 : 명 (%)

	경험군	무경험군	계	χ^2
자녀수 (명)				
1	53(41.41)	75(58.59)	128(100.0)	9.33*
2	135(53.78)	116(46.22)	251(100.0)	
3	38(56.72)	29(43.28)	67(100.0)	
4 ↑	7(31.82)	15(68.18)	22(100.0)	
자녀 구성				
아들만으로	76(48.72)	80(51.28)	156(100.0)	0.15
딸만으로	55(49.55)	56(50.45)	111(100.0)	
딸·아들로	102(50.75)	99(49.25)	201(100.0)	
계	233(49.79)	235(50.21)	468(100.0)*	

* $p < 0.05$ * 현존자녀가 없는 29명 제외

인 목적에서 원치않았던 임신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태아가 딸이어서 인공유산을 했다는 응답은 소자녀관 정착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남아선호사상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현존자녀의 성과 수에 따른 마지막 임신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마지막 임신을 인공유산한 비율은 자녀수가 2명인 경우 41.95%로 높았으며 4명인 경우는 14.3%만이 인공유산을 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구성에 있어서는 아들만 있을 경우 44.36%로 가장 높은 인공유산 경험률을 나타낸 반면, 딸 아들 모두 있는 경우는 34.2%가 인공유산을 하여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인공유산 횟수에 따라 경험유무로 구분하여 χ^2 -test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녀수가 3명인 경우 인공유산 경험율이 56.7%로 가장 높은 반면 4명이상인 경우 경험률은 31.8%로 가장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자녀구성에 있어서는 아들만으로 구성된 경우 가장 낮은 인공유산 경험률을 보였으나 이는 다른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5. 인공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부인의 인공유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Logistic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인공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 인	β (S.E)	Odds Ratio
연 령	.067 (.021)	1.070*
교육수준	-.015 (.189)	.988
취업여부	.221 (.230)	1.248
현존자녀의 수	-.517 (.184)	.596*
현존자녀의 성	-.282 (.270)	1.326
인공유산을 피임방법으로 인지	-.186 (.265)	1.207
	Chi-Square	df Significance
-2 Log Likelihood	478.120	360 .0000
Model Chi-Square	16.827	6 .0099
Goodness of Fit	367.079	360 .3871

* $p < 0.01$

이때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인공유산경험의 유무는 현존자녀의 성과 수가 인공유산 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 부인의 마지막 임신결과에

대한 인공유산 경험 유무로 한정시켰으며, 독립변인은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알아볼 때와 마찬가지로 대상부인의 특성중 연령,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현존자녀의 성과 수, 그리고 인공유산을 피임의 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지 등의 6가지였으며, 이중 부인의 취업여부와 자녀구성, 인공유산을 피임으로 알고 있는지의 변수를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한 방법도 동일하다.

<표 8>에서 보면 분석을 위해 logit coefficient인 β 와 독립변수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odds(특정범주의 사례수를 그 이외 범주의 사례수로 나눈 비율)의 변화를 의미하는 odds ratio를 제시하였다.

우선 부인의 연령이 피임실천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공유산 경험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쳐 ($P < 0.01$), 부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인공유산 경험률이 높았다 (odds=1.07). 또한 현존자녀수도 유의한 영향을 보였는데 ($P < 0.01$)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인공유산 경험률이 낮았다 (odds=0.60). 그의 부인의 일반적 특성 중 학력이 낮고,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자녀중 아들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인공유산을 피임방법의 하나로 알고 있는 경우 인공유산 경험률이 높았으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유배우 가입부인들의 현존자녀 성과 수에 따른 가족계획실천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들의 필요성, 피임실천여부와 방법 그리고 인공유산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부인의 인적특성 중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19.3%, 30대가 51.7%, 40대가 29.0%로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이상이 92.6%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현재 취업중인 부인은 35%였으며, 가족형태는 81.5%가 2세대가족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상부인의 현존자녀 수는 평균 2.0명으로 성구성은 딸 아들을 둔 경우가 42.9%, 아들만 둔 경우가 33.5%, 딸만 둔 경우가 23.6%였으며 특히 딸 2명 아들 1명을 둔 경우는 Sheps의 출생확률분포보다 10%나 초과하였다.

2. 이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15.7%만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하여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함을 나타냈고, 현존자녀의 성과 수에 따른 이들의 필요성은 현존자녀의 수가 3명 이상으로 자녀수가 많은 경우 아들 선호도가 높았으며, 현존자녀의 구성에 있어서는 딸만을 둔 경우 아들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3. 대상부인의 자녀수에 따른 피임실천율은 자녀수가 2명인 경우 78.1%로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며, 피임실천을 하고 있는 경우 방법에 있어서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 79.2%가 일시적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자녀수가 4명 이상인 경우 83.3%가 영구적 피임 방법을 사용하였다.

4. 대상부인의 자녀수에 따른 인공유산 경험률은 3명의 자녀를 둔 경우 56.7%로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 임신을 인공유산으로 종결한 비율은 자녀수가 2명인 경우 42%로 가장 높았다.

5. 대상부인의 자녀 성에 따른 피임실천율은 현존자녀가 모두 딸인 경우 63.1%로 가장 낮았으며, 피임실천 내용 중 영구적 피임방법은 아들만 있는 경우 60.7%가 사용한 반면, 딸만 있는 경우는 14.3%만이 사용하였다.

6. 대상부인의 자녀성에 따른 인공유산 경험률은 딸·아들을 모두 둔 경우 50.8%로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 임신을 인공유산으로 종결한 비율은 아들만 있는 경우에서 44.4%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대도시 일부 기혼부인을 대상으로한 부분적 조사결과이나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남아선호사상을 확인하였으며 자녀수와 구성에 따라 피임실천내용이 다르므로 소자녀관 정착과 함께 바른 자녀관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원치않는 자녀의 인공유산을 막기위한 보다 강력한 가족계획 실천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가족계획 사업의 질적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의미의 사업확산을 위하여 단순히 자녀수를 제한하고 조절하는 의미의 가족계획에서 보다 포괄적인 혼전지도·결혼지도·육아 등을 포함하는 가정생활의 향상을 위한 연구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민창동(1972). 한국 가족계획사업의 향방. 『인구문제논집』. 14, 104-108.
2. 문현상, 성희원, 신성희(1982). 『1982년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3. 문현상, 이임진, 오영희, 이상영(1989).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4. 이미경(1989). 국가의 출산정책. 『여성학논집』. 6, 48-78.
5. 김초강, 정혜경(1990). 『모자보건·인구·가족계획』. 서울: 수문사.
6. 양재모(1986a).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종합분석. 『한국인구학회지』. 9, 1-13.
7. 김초강(1993). 생애주기별 인공임신중절의 변화. 『학생생활연구원 논총』. 51, 89-98.
8. 임종권, 이상영, 배화옥(1989). 한국의 인공임신중절실태. 『인구보건논집』. 9, 23-59.
9. 한성현(1973).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10. 홍분식, 오영희(1992). 『인공임신중절의 변동 추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홍성봉(1972). 『전국인공유산의 실태』. 서울: 최신의학사.
12. 최재석(1983).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13.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3).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4. 서울방송(1993). 『무너지는 성비, 아들이 남아둔다』. 그것이 알고싶다.
15. 공세권, 조애저, 김승권, 손성희(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이홍탁(1987). 남아선호가 출산행태 및 가족규모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전망』.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7. Mindel C. Sheps(1963). Effects on Family Size and Sex Ratio of Preferences Regarding the Sex of Children. *Population Studies*, 17, ;66-69.
18. Moore, E.C.(1971). *Induced Abortion and Contraception: Sociological Aspects. Research Approaches.* New York : The Population Council. ;137-139.
19. Bernstein, M.E.(1986). Secondary sex ratio variation.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38, 773-778.
20. UN(1992). *Abortion Policies : A Global Review Vol 1.* New York : UN.

<Abstract>

**A STUDY on the PRACTICE of FAMILY PLANNING
of SOME MARRIED WOMEN
— FOCUSING on SEX & NUMBER of ACTUAL CHILDREN —**

Hyun Kyung Lim, Cho Kang Kim

(Dept. of Healt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of abortion and practice of contraception in view of preventive in order to analysis the degree of family planning according to the sex & number of actual children.

We collected data on married conceptive women who are resident in Seoul and from 20 age to 49 age. This was carried out from 26 July, 1993 to 25 August, 1993. This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χ^2 Logistic regression using SAS/PC⁺ and SPSS/PC⁺.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

1. Those who answered "son is not positively necessary" are only 15.7% among investigated women.
2. The percentage of practicing contraception was 68.2%, in case of 30s women it was 74.3% and most high. Also, in view of religion, the percentage of practicing contraception of Buddhist was most low as 61.54% ($p < 0.05$).
3. The portion of those who had sons more than four who used permanent method of contraception is most high (83.3%), in terms of composition, while the ratio of those who have only son is 60.7%, the ratio of those who have only daughter was only 14.3%.
4.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ndependent variable affecting practice of contraception, we analysed data wi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as follows: the older ($p < 0.01$) woman i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of woman ($p < 0.05$), the more it affects significantly practice of contraception.
5. In abortion experience, the number of experienced women was 241 (50.3%) and including repeated abortion, the total number of abortion is 317. The main reason of abortion was that they didn't want more child. The number of abortion due to such reason was 153 (48.3%). Especially, the 181 (43.0%) cases among last pregnancy 421 cases were the undesired pregnancy. So, the 147 cases of them came to abortion.
6. In the number of actual children, the ratio of those who have three children occupied high portion (56.7%, $p < 0.05$), for the composition of children, although the case of those who have both son and daughter showed most high ratio of experience of abortion, but it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7. In order to investigate independent variable affecting experience of abortion, we us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was that the older women was ($p < 0.01$) and the more they had actual children ($p < 0.01$), it significantly affected abortion.